



ECB, 기준금리 1.0%로 인하

정인영 연구원

■ ECB는 12월 8일(현지시각) 기준금리를 1.25%에서 1.0%로 2개월 연속 0.25%p 인하함.

- 이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, Draghi 총재는 금융시장 위축이 유로지역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며, 재정위기 우려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하방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함.
- 이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3%대로 목표치인 2%를 크게 웃돌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행된 조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,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■ 또한 은행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은행에 대한 장기대출(LTRO) 만기를 기존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, 대출 담보요건을 완화하며, 지급준비율을 기존 2%에서 1%로 인하함.

- 장기대출담보로 허용되는 자산담보부증권(ABS)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은행 대출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 담보요건을 완화함.
- 이러한 ECB의 결정은 신용경색에 처해있는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조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유로자금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신용 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.

■ 그러나 ECB의 보다 적극적인 국채매입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함.

- 또한 IMF를 통한 국채 매입과 같은 우회지원 가능성 역시 일축함.
-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금리인하와 은행의 유동성 확대 조치보다는 ECB의 적극적인 국채 매입확대와 같은 역할 확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함.

(ECB 발표 등, 12/08)